

남조선당국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헌조성》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고 요란스럽게 웨쳐대고있다.

지난 2월 14일에 있었던 북남고위급접촉때에도 남조선당국은 《신헌조성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증상을 완전히 중지할때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물고 온 겨레앞에서 그 리행을 엄숙히 다짐하였다.

신헌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며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것으로 더욱 깊어지는 법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과 그에 추종하는 보수언론들의 우리에 대한 비방과 증상은 북남고위급접촉에서 이룩한 합의에 관계없이 더욱더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다.

당국자들이 공개석상에 나타나 공공연히 우리를 헐뜯어대면 언론매체들이 그에 맞장구를 치며 출주어내고 인간쓰레기들이 군사적비호까지 받으면서 기세를 올리고 반공화국베라살포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제는 동족비방과 증상이 도수를 넘어 우리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까지 합부로 헐뜯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선거가 진행되기 전부터 많은 《투표소》들에서 《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강한 군병력이 순찰과 경비를 강화하면서 총부리를 겨누고있기때문에 마치 선거자들이 공포에 질려 할수없이 찬성투표하는것처럼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이 소중하다면 합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

북남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담화

남조해댄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지어 100% 투표, 100% 찬성이 라는 결과까지 《의심이 간다.》고 결코드는 등 적대감이 골수에 배지 않고서는 꾸며낼수 없고 병적거부감이 체질화된자들이 아니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비방증상에 피눈이 되어 돌아치고있다.

우리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로 말하면 천만국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일심단결된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는 또 하나의 계기이다.

나라마다 선거가 있지만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포함한 모든 공민들이 정권의 주인,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귀중한 자기 주권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정을 안고 총정의 한표, 애국의 한표를 바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거이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증상에 도 정도가 있어 조나와 모락에도 분별이 있어야 한다.

사실 남조선당국은 선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남을 시비할 초보적인 체면도, 자각도 없다.

선거때마다 만사함을 경악시키는 형형색색의 부정행위가 관을

치고 그것으로 세상사람들의 폭소를 자아내고있는 곳이 다름아닌 남조선땅이다.

금전과 뇌물로 자리다툼을 하것과 같은 온갖 추행도 모자라 《정치맷글사건》, 《관권계입사건》과 같은 사상초유의 사건들까지 란무하는 남조선의 선거는 그야말로 악몽의 연속으로 이어지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덮어두고 마치 저들의 선거가 《권력을 재생산, 교체하는 다원주의꽃》이고 《민주주의꽃》이나 되는듯이 미화분식해대고있다.

악취풍기는 시궁창에서 향기로 온 장미꽃이 피어난다고 우겨대는셈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반공화국비방증상이 북남고위급접촉이후 우리에 대한 남조선당국자들의 로골적인 비난발언에 의해 더욱더 크게 확산되고있다는데 있다.

북 남 고 위 급 접 촉 은 각 기 최고수뇌부의 특명을 받아 진행된것만큼 당국자들부터가 여기에서 이룩된 합의의 리행에 출신수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보다 비방증상에 제정신없이 날치고있다.

최근 며칠사이에만도 우리의

행에 대하여 입버릇처럼 떠들다 못해 나중에는 북남관계를 가로막고있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바로 북핵》이라고 결코든 것도,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이 《불가능》하다며 그 누가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하라는 도발적인 선동에 열을 올린것도 다름아닌 남조선 집권자이다.

우리의 자위적조치인 로케트발사를 한사코 결코들면서 유엔제재까지 떠들고있는것도, 우리의 면전에서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를 감행케 한것도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다.

지금 사람들은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처사가 《청와대식신헌조성》인가고 아우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모처럼 마련된 북남고위급접촉합의리행이 엄중한 기로에 놓여있는것과 관련하여 북남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립장을 밝히지 않을수 없다.

1. 남조선당국자들부터가 합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

로 입술 북남고위급접촉합의에도 아랑곳없이 비방증상의 선두에 서있는것이 남조선당국자들이다.

외교부 장관이라는자는 우리가 대화공세를 펴고있지만 실제로는 합동군사연습증단을 요구하는 등 《도발에 여념이 없고》《아무런 변화 움직임도 없다.》는 심히 부정적이고 오만무례한 수작질에 계속 매달리고있다.

《통일부》장관이라는자 역시 동족비난에 환장이 된 나머지 우리가 그 무슨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치사하고 격려운 망발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격분시키고있다.

집권자의 못된 발언은 더 외울 지경이 못된다.

정수리에 부은 더러운 구정물이 발뒤꿈치까지 내려간다는 말이 있다.

남조선전열을 반공화국비방증상의 도가니로 만들려고 꾀하고 있는것이 바로 당국의 대북관련 부처 장관들의 못된 허바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하의 모든 선과 악이 허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진정으로 북남관계의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국자들부터가 모든 재난의 학인인 입을 다물고 합부로 혀를 놀리지 말아야 한다.

2. 남조선의 보수언론매체들도 제멋대로 놀아대지 말아야 할것

이다. 언론은 시대의 선각자이고 정의의 수호자이며 여론의 공정한 대변자이다. 언론이 이 본연의 사명을 잊는다면 기필코 민심을 등지고 대세에 역행하기 마련이다.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매체들이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모락보도를 날리면 《KBS》, 《MBC》, 《SBS》등 방송매체들이 그에 뒤질세라 허황한 소리를 보태어 청을 돌리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매체들은 베짖어 진 정권의 시녀가 되어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매문가들의 집합체가 될것이 아니라 민족적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애국, 애민의 선도자가 되여야 한다.

3. 당국이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을 군사적으로 비호하며 반공화국베라살포에도 내모는 어리석은 처사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할것이다.

이른바 《탈북자》들이라고 하는 인간쓰레기들을 말하면 우리 공화국에서 살인강도와 부화타락, 부정부패 등 갖은 악행을 다 일삼다가 천혈옥들에게서까지 버

림을 받고 쫓겨난 추물중의 추물들이며 개만도 못한자들이다. 이 구린나나는 시대의 퇴적물들을 꺼안고 동족을 비방하며 대결해보려는 남조선당국의 처사야말로 얼마나 가련하고 초취한가.

우리는 이미 두차례에 걸쳐 청와대앞으로 반공화국베라를 살포하는것과 같은 비방증상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남측당국이 앞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것이라는 의미있는 경고통지문을 보낸바 있다.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표현 및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당치않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우리에 대한 비방증상을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제한할수 없다.》는 식으로 놀아댈수록 자기의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내는것은 물론 북남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북남고위급접촉이 마련되고 귀중한 민족적합의가 이룩되었지만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벌어진 현실은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합의에 대한 성실한 리행에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신헌조성》이 있고 북남관계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지금은 결코 갈발린 말로 민족

남조선당국의 태도와 움직임을 엄밀히 주시해볼것이다.

주제103(2014)년 3월 11일 평 양

외세공조는 북남관계파국의 길

지금 미국은 북과 남이 관계개선의 길로 나아가는것을 탈가와하지 않으면서 조선반도에서 어떻게 하나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기 위해 갖은 발악적책동을 다하고있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기를 쓰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은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국이 《넉례적》이니, 《방어적》이니 뭐니 하고 광고하고있지만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그 규모나 성격으로 보나 명백히 공화국을 무력으로 공격하기 위한 북침예비전쟁, 핵전쟁연습이라는것은 자라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이 광란적인 북침준비장난소동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사업들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어느 순간에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철에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최근 우리 공화국이 북남관계개선과 관련한 원칙적립장을 밝히고 실천적조치들을 취하고있는데 따라 북남당국사이엔 일련의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겨레의 관심을 끄는 성과도 이룩되었다. 이에 당황해난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도발에 더욱 열을 올리는 한편 반공

화국핵소동으로 여론의 이목을 떠내로 돌리고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흐려놓으려고 꾀하고있다.

미국의 고위인물들은 《핵포기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니, 《비핵화 약속》과 《국제적무리리행》이니 뭐니 하며 북남관계개선에 제동을 걸려 하고있다. 최근에다 남조선에 편이아 날아든 미국무성 부장관, 차관보, 대조선정책특별대표 등이 그 누구의 《도발》과 《핵위협》을 요란스럽게 광고하면서 《우려》니, 《태도변화》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미국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이며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화근이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공화국에 대한 압살과 북침을 노린 적대시정책이다. 진조선반도를 손아귀에 거머쥐고 아시아지역에 대한 군사적지배권을 실현하려는것이 미국의 속심이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조선전쟁을 도발했던 미국은 그후 60여년간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가로막고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어왔다. 미국은 우리 민족내부에서 통일기운이 높아갈 때마다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면서 끊임없는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었다. 광란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오늘날 미국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의 시대적호름에 역행하면서 군사적도발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북과 남이 지난 2월초 판문점에서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과 관련한 합의를 이룩했다가던 그 시각에도 미국은 《B-52》핵전략폭격기편대들로 하여금 조선서해 적도상공에서 하루 종일 공화국을 겨냥한 핵타격연습에 돌아치게 하였다.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갖은 비방증상을 일삼으면서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에 나서지 말도록 음모로 양으로 압력을 가하는 놀음도 벌리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남조선인민들도 격분해 넘쳐 미국을 단죄하고있다.

우리 민족문제에 파렴치하게 간섭하며 갈잡아라, 배놓아라 호통치는 미국의 행위는 라민족을 회생시키는 대가로 저들의 탐욕적인 이익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강도적이며 제국주의적인 본성을 적라라하게 드러내고있다.

북남대결은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의 산물이다. 미국은 북

과 남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래서 꾀하면 대결을 부추기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놀음에 매달리고있다.

이러한 미국의 간섭을 허용하거나 거기에 말려들게 되면 북남관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수가 없다. 침략적인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 70년간에 걸치는 민족분열의 력사는 외세와의 공조는 동족사이에 불신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충돌과 전쟁위험만을 증대시킨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의 주인은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다. 북남관계개선을 원하는것도 우리 민족이고 그것을 안아올 결정적힘도 우리 민족에게 있다.

외세가 아니라 동족과 공조하고 힘을 합쳐야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새 국면을 안아올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외세공조를 반대배격하고 민족공조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우에 존엄높은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최 광 혁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행위 폭로

남조선의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이 5일 남조선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안법》을 구실로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년동안 인터넷에 실린 게시물들중 무려 6 000여건에 대해 강압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삭제한 사실이 얼마전에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는 6 000여건의 수자도 놀람지 만 이러한 제재가 계속되어 왔다는것이 더욱 문제라고 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멋대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성원은 위원회가 북에 대한 찬양, 고무의 성격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시정할것을 요구하며 권한을 람발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북의 체제를 찬양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삭제할 때 대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폭로하였다.

단체는 어떤것이 《보안법》위반인가를 알려줄것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영국단체들 남조선당국의 진보인사탄압책동 규탄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주체사상연구소조, 조선파의 친선협회 영국지부가 남조선당국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게 증형을 선고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게 가혹한 징역형을 들춰운데 대해 폭로하고 이것은 남조선이야말로 민주주의가 말살된

파쇼독재사회라는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남조선에서는 《보안법》에 따라 좌익정당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나라의 통일을 지지하는 모든 진보세력들의 활동이 비법화되어있다.

남조선주둔 미군은 주인행세를 하면서 해마다 남조선

인민들의 혈세로 자낸 막대한 유지비를 탕진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은 인권의 동토대, 파쇼가 란무하고 진보적인 사상과 활동이 탄압당하는 암흑천지로 변하였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게 대한 극악한 판결을 취소하고 그를 무조건 석방할것을 요구한다.

본사기자

남조선정보원은 범죄집단이라고 단죄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10일 남조선정보원의 해체를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정보원이 저들의 간첩사건조작행위가 숨길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려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항상 그랬듯이 현 《정권》이 이번에도 정보원을 범죄집단으로 단죄하며 수사방해, 진실은

페, 언론을 동원한 여론조작 등으로 몰아갈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서슴없이 사실을 날조하여 간첩사건을 조작하는 정보원은 범죄집단이라고 단죄하였다.

오죽하면 정보원내에서도 정보원개혁을 요구하겠는가고 하면서 범죄집단 정보원은 더이러한 개혁을 기대해서는 안되며 위법행위를 계속하라는 상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보원을 해체하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사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우리의 생명인 최고존엄과 체제를 감히 건드리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반통일대결광신자들의 동족에 대한 비방증상이 도수를 넘어 극한점에 이르렀고있다.

지난 11일 피퇴정보원산하 《안보전략연구소》 소장 유성욱이라는자는 《새누리당》소속 의원들의 모임인 《통일경제교섭》에서 한 특강이라는데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오악성》이니, 《공포정치》니 뭐니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악담질을 하였다.

뿐만아나리 우리 체제에 대해 《교장난 자동차》니, 《금번사태가 능성》이니 하고 험담하였다.

놈의 악담은 완전히 터무니없고 악의에 찬 모략과 날조로 일관된 우리에 대한 엄중한 비방증상이며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에 대한 참을수 없는 특대형도발이다.

유성욱놈으로 말하면 모락의 소굴인 피퇴정보원에 오래동안 있으면서 우리에 대한 정보와 《대북정책》을 전담해왔으며 2년전부터는 정보원산하 정찰연구기관인 《안보전략연구소》소장으로 자리를 옮겨앉아 반공화국대결정책추진의 앞장에 서온 악질대결분자이다.

놈의 이런 악담은 그 내용과 극악성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격분을 폭발시키고고있다.

특히 개별석상도 아닌 《새누리당》소속 《국회》의원패거리들의 공식모임에서 미리 준비된 각본으로 악담질하였고 《안보전략연구소》가 피퇴정보원산하 정책연구기관이다가 소장이라는 직책으로 《국록》을 타먹는 차관급이라는것을 놓고볼 때 이번 도발적망발은 명백히 현 당국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것으로서 실로 증대한 비상사건이 아닐수 없다.

결국 최근 남조선에서 우심해지고있는 우리에 대한 비방증상이 그 어떤 개별적인물이나 단체,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의한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보원,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매체에 결탁하여 짜고고의적인 모략소동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것처럼 온갖 모략과 음모로 남조선에 포악하고 살벌한 공포정치를 몰아오고있는것은 다름아닌 피퇴정보원이다.

돈과 위협공갈로 목사를 첩자로 흡수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파괴전복음모에 내몰고 우리 주민들을 백주에 유인, 람치하여 남조선에 끌고가며 각종 간첩사건을 조작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처형하고있는것이 바로 피퇴정보원이다.

지어 3국의 공식문서까지 위조하여 모략에 써먹다가 들장이 나 국제

적규탄대상으로 되고있는것도 피퇴정보원이다.

그로 하여 지금 피퇴정보원은 해체의 심판대에 올랐으며 그 주장인 남재준놈은 목이 떨어질 운명에 처해있다.

이러한 정보원패거리들이 감히 그 누구에 대해 허바닥을 제멋대로 놀리는것이야말로 다 죽은 산송장이 하느니 무서워 쫓아대는 개녀두리가 아닐수 없다.

이번 망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만국민이 더욱 철들같이 뭉치고 불패의것으로 다져진 우리의 일심단결을 해치고 우리의 영상을 흐려보려는 반통일대결미치광이들의 단말마적발악이며 만민이 우려는 찬란한 태양의 밝은 빛을 손으로 가리워보려는 정신병자의 가소로운 히스테리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정보원의 추악한 비방증상놀음에 적극 합세해나선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에 피퇴정보원의 무지무도한 독실가를 특강연단의 내세움으로써 제 얼굴에 먹칠을 하고 정보원과 같고같다는 오명을 스스로 쓰게 되어 다가온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의 저주를 더욱 밋어낸 격이 되었다.

평 양